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하위 문항 예시 답안

1

⑥은 자원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자원 고갈과 대체 에너지 부재, 편중된 자원의 확보와 이동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의 문제를 보여준다. 자원 배분의 문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③, ④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에서 ‘정’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경제 구조를 다시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자원 격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 2]는 산림자원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③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기존에 오스만 제국이 장악한 교역의 패권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도 항로를 개척했는가를 설명한다. 이들처럼 우리는 세계 에너지 고갈과 자원 편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새로운 자원 이동 경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맺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④는 병국이 희귀조 멸종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병식과 박제사를 설득하고, 야생동물 보호협회와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묘사하고 있다.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의 작은 실천을 해야 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48자]

②의 모진소리는 나의 행동이 타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성찰을 보여주며, 이는 개인의 무분별한 자원의 유용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울림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타자와의 공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작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⑤의 공생진화론은 생명체가 경쟁보다는 상부상조를 통한 공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는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자원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공생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 ‘옹호’의 경우

⑦의 화자는 군주가 사람들에게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통치에 효율적이며, 이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본래 변덕스럽고 악한 존재로 이익에 따라 행동하며 감사의 상호관계를 쉽게 저버리지만 처벌에의 공포는 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형벌과 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①의 정(政)과 유사하다.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벌과 상을 내리는 군주의 권위와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옹호의 근거는 ③의 사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 ③의 유럽인과 원주민은 ⑦의 군주와 백성의 관계와 유사하다.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화포로 무장하여 각각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기에, 이는 그들이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소수의 병력만으로도 원주민을 통치하여 금과 은을 수탈하고 사탕수수와 담배 플랜테이션 농장도 건설할 수 있었다. ④의 병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옹호의 근

거를 찾을 수 있다. 병국은 야생조류 박제를 막기 위해 동생 병식과 박제사를 설득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대함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익 추구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 병국이 동생을 타이를 때 병식이 오히려 “개떡 같은 이론 집어치워”라며 대드는 것은 ⑦에서의 주장처럼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통한 두려움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734자]

• ‘비판’의 경우

⑦의 화자는 군주가 사람들에게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통치에 효율적이며, 이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본래 변덕스럽고 악한 존재로 이익에 따라 행동하며 감사의 상호관계를 쉽게 저버리지만 처벌에의 공포는 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유대 등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자유롭게 스스로를 통치하는 존재이다. ②의 시적 화자의 말처럼 타인에 대한 모진 소리는 나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므로,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출 때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해서는 처벌과 공포 대신 타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⑦의 주장은 피지배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③에서 유럽인들은 화포를 동원해 원주민들의 두려움을 유발하여 그들의 재화를 수탈하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였다. 유럽인들이 공포감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을 지배하고 착취한 행위는 전형적인 식민 통치로서 인종 차별과 인권 말살에 해당한다. 이를 ⑦의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 대입해본다면, 공포와 규제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상호 감사와 부조가 공동체의 번영과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다. ⑤에 따르면 균류와 조류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공생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를 통해 두려움을 우선시하는 방식은 사랑을 중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739자]